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2.5.29

미 증시,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및 저가 매수 기대로 강세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PCE 물가지수 발표로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기대가 높아지자 상승 출발. 여기에 엔비디아(+5.38%)에 이어 테슬라(+7.33%)에 대한 매력적인 매수 구간에 돌입 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자 그동안 낙폭이 컸던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확대되며 나스닥의 강세폭이 컸음. 이에 힘입어 목요일에 이어 금요일에도 강세를 보여 주간 단위로 3대 지수 모두 6%대 급등하며 마감(다우 +1.76%, 나스닥 +3.33%, S&P500 +2.47%, 러셀2000 +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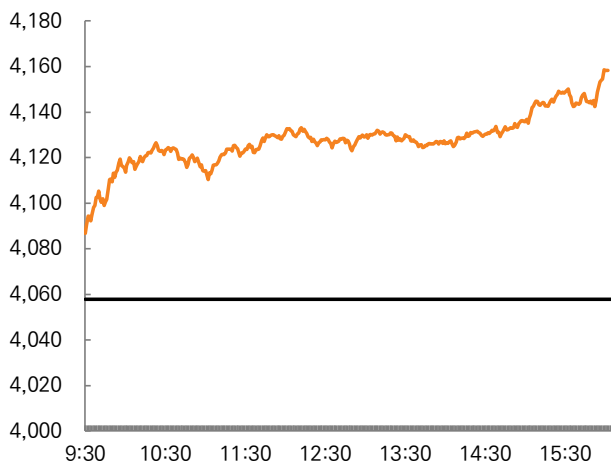
특이 종목

- 테슬라(+7.33%)는 인플레이션 피크 기대에 따른 심리적인 안정에 이어 CS가 최근 하락으로 매력적인 매수 구간에 돌입했다고 발표하자 상승. 애플(+4.08%), 알파벳(+4.16%), 아마존(+3.66%), MS(+2.76%) 등 대형 기술주도 동반 상승. 클라우드 보안회사 지스케일러(+12.57%)와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토데스크(+10.31%), 그리고 델(+12.86%)은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로 급등. 마이크론(+3.85%), 브로드컴(+5.92%), 엔비디아(+5.38%) 등도 상승 지속. 로쿠(+8.96%)는 밸류이션이 합리적인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되자 급등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1.56%, MSCI 신흥 지수 ETF는 1.15%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52.71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60% 상승. KOSPI는 0.7% 내외 상승 출발 예상.
- 미 증시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 심리가 높아지며 강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더 나아가 지난 목요일 엔비디아에 이어 금요일에는 테슬라와 로쿠 등에 대해 매력적인 매수 구간에 돌입했다는 보고서들이 발표된 점도 우호적. 최근 시장의 화두 중 하나인 과매도에 따른 하락시 매수 심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 이러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와 달러/원 환율의 안정으로 긍정적인 외국인의 수급에 힘입어 한국 증시는 0.7% 내외 상승 출발 후 견고한 흐름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638.05	+0.98	상해종합	3,130.24	+0.23
KOSDAQ	873.97	+0.29	홍콩항셍	20,697.36	+2.89
DOW	33,212.96	+1.76	베트남	1,285.45	+1.33
NASDAQ	12,131.13	+3.33	유로스톡스 50	3,808.86	+1.83
S&P 500	4,158.24	+2.47	영국	7,585.46	+0.27
캐나다	20,748.58	+1.05	독일	14,462.19	+1.62
일본	26,781.68	+0.66	프랑스	6,515.75	+1.64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기술주 호재: ①인플레이 피크 ②매수 의견 ③실적 호전

미국의 물가지표에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있고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즉 PCE 물가지수가 가장 유명한데 2000년 이전 연준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의존해 금리를 결정했지만 이후에는 PCE 물가지수에 더 의존. 두 지표의 차이를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상품과 서비스의 대체를 감안하지 않지만 PCE 물가지수는 대체 물가를 허용하는 등 실질적인 물가 척도를 알려주고 있어 연준은 이를 더 선호.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발표된 PCE 물가지수가 중요 했었는데 지표 결과를 보면 4월 발표(mom +0.9%)나 예상(mom +0.3%)을 하회한 전월 대비 0.2% 상승에 그쳐 전년 대비로는 지난달 발표된 6.6% 보다 낮은 6.3% 상승.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핵심 PCE 물가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3% 상승을 유지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5.2%에서 4.9%로 둔화. 이 결과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 심리를 더욱 높임.

여기에 테슬라(+7.33%)에 대해 CS가 최근 하락으로 매력적인 매수 시점에 도달 했다고 발표하는 등 개별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도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우호적인 영향을 줬음. 최근 엔비디아(+5.38%)가 가이드스 하향 조정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최근 하락으로 매력적인 매수 시점에 도달했다는 보고서가 제출 된 데 이어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가 제출되자 그동안 하락이 컸던 종목군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

특히 이날 긍정적인 실적과 전망을 발표한 델(+12.86%), 오토데스크(+10.31%), 지스케일러(+12.57%) 등 IT 관련 종목군이 급등한 점도 최근 낙폭이 컸던 기술주 중심의 강세를 견인. 결국 미 증시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와 IT 기업들의 실적 호전, 긍정적인 투자 의견 등에 기반해 강세를 보임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테슬라, 로쿠, 매력적인 매수 구간 돌입 소식에 급등

테슬라(+7.33%)는 인플레이션 피크 기대에 따른 심리적인 안정에 이어 CS가 최근 하락으로 매력적인 매수 구간에 돌입했다고 발표하자 상승. 포드(+3.89%)는 F-150 전기 트럭 인도 소식에 강세. 애플(+4.08%), 알파벳(+4.16%), 아마존(+3.66%), MS(+2.76%) 등 대형 기술주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 속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클라우드 기반 보안회사 지스케일러(+12.57%)는 견고한 실적 발표로 급등.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토데스크(+10.31%)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로 급등. 인튜이티브(+3.95%), 서비스나우(+4.71%) 등 여타 소프트웨어 업종도 동반 상승.

델(+12.86%)은 PC 산업의 견고함 등을 기반으로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로 급등. 마이크론(+3.85%), 브로드컴(+5.92%), 퀄컴(+3.65%) 등은 물론 엔비디아(+5.38%), AMD(+3.55%) 등도 동반 상승. 특히 퀄컴은 CEO가 시장이 자사에 대한 평가를 잘 못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도 긍정적. 울타뷰티(+12.47%)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로 급등. 중국 전자 상거래 회사인 핀두두(+15.19%)도 견고한 실적 발표로 급등. 로쿠(+8.96%)는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인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자 급등. 다만, 공급망 불안으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의류 업체인 아메리칸 이글(-6.63%)과 할인 소매업체인 빅 롯(-12.10%) 등은 급락. 인적관리 업체인 워크데이(-5.57%)도 부진한 실적 발표로 하락. 코스트코(+1.24%)는 동일 매장 매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변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부각되자 상승 전환 성공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3.99	대형 가치주 ETF (IVE)	+1.74
에너지섹터 ETF (OIH)	+1.78	중형 가치주 ETF (IWS)	+2.21
소매업체 ETF (XLY)	+3.43	소형 가치주 ETF (IWN)	+2.30
온라인소매 ETF (EBIZ)	+2.93	대형 성장주 ETF (VUG)	+3.47
금융섹터 ETF (XLF)	+1.69	중형 성장주 ETF (IWP)	+3.45
기술섹터 ETF (XLK)	+3.38	소형 성장주 ETF (IWO)	+3.12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1.77	배당주 ETF (DVY)	+1.42
클라우드 ETF (CLOU)	+3.52	신흥국 고배당 ETF (DEM)	+0.78
미국 리츠 ETF (VNQ)	+2.68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0.66
주택건설업체 ETF (XHB)	+2.03	미국 국채 ETF (IEF)	+0.14
바이오섹터 ETF (IBB)	+3.20	하이일드 ETF (JNK)	+0.94
헬스케어 ETF (XLV)	+1.66	물가연동채 ETF (TIP)	+0.32
곡물 ETF (DBA)	+0.63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52
반도체 ETF (SMH)	+3.97	모멘텀 ETF (MTUM)	+2.69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경기소비재	1,200.50	+3.47	+9.24	-5.63
IT	2,470.27	+3.44	+8.07	-0.31
부동산	280.20	+2.82	+5.81	-3.84
통신	200.75	+2.62	+3.59	+1.37
소재	547.81	+2.30	+5.93	+2.59
산업재	805.12	+2.05	+6.33	+0.07
금융	590.46	+1.79	+8.05	+2.92
헬스케어	1,559.34	+1.72	+3.21	+2.69
에너지	669.03	+1.67	+8.09	+16.88
유틸리티	380.97	+1.49	+5.00	+5.28
필수소비재	777.86	+1.09	+6.16	-4.03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긍정적인 외국인 수급 속 견고한 흐름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는 1.56%, MSCI 신흥 지수 ETF는 1.15%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252.71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60% 상승. KOSPI는 0.7% 내외 상승 출발 예상.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 완화에 기대 상승하자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강세를 보임. 관련 이슈는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수급적인 요인 또한 우호적. 여기에 엔비디아에 대해 최근 하락으로 매력적인 매수 구간에 돌입 했다는 발표도 기술주 특히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임. KOSPI는 0.98%, KOSDAQ은 0.29% 상승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 심리가 높아지며 강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더 나아가 지난 목요일 엔비디아에 이어 금요일에는 테슬라와 로쿠 등에 대해 매력적인 매수 구간에 돌입했다는 보고서들이 유입되고 있는 점도 우호적. 최근 시장의 화두 중 하나가 과매도에 따른 하락시 매수 심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 이는 한국 증시도 낙폭이 컸던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물론, 월말, 월초에 많은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데 최근 CITI Economic Surprise Index가 마이너스 권을 기록하고 있어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예상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돼, ‘경기침체’ 이슈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은 부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와 달러/원 환율의 안정이 예상되고 있어 긍정적인 외국인의 수급에 힘입어 한국 증시는 0.7% 내외 상승 출발 후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인플레이션 피크 기대 확대

미국 4월 개인 소득은 지난달 발표(mom +0.5%)나 예상(mom +0.6%)를 하회한 전월 대비 0.4% 증가에 그쳤고 소비 지출 또한 지난달 발표(mom +1.4%)를 하회한 전월 대비 0.9% 증가

미국 4월 PCE 물가지수는 지난달 발표(mom +0.9%)나 예상(mom +0.3%)을 하회한 전월 대비 0.2% 상승에 그쳐 전년 대비로는 지난달 발표된 6.6% 보다 낮은 6.3% 상승. 핵심 PCE 물가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3% 상승을 유지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5.2% 상승보다 낮은 4.9% 상승을 기록

미국 5월 소비 심리지수 확정치는 58.4로 지난달 발표된 65.2는 물론 예비치인 59.1 보다도 낮은 수준. 현재 여건은 지난달 69.4보다 낮은 63.3으로 기대 지수도 62.5에서 55.2로 둔화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FICC, 위험자산 선호심리 유입

국제유가는 드라이빙 시즌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로 상승. 더불어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수요 증가 가능성을 높임. 여기에 OPEC+ 장관급회담에서 감산 규모 축소를 결정된 규모로 축소하는 등 공급 부담도 상승 요인. 이런 가운데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공급 부담 요인. 결국 수요 증가와 타이트한 공급 여파로 상승 지속

달러화는 PCE 디플레이터를 통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를 더욱 확산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 특히 주식시장이 강세폭을 확대시킨 점도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에 따른 달러 약세 요인 중 하나. 다만, 높은 수준의 물가는 지속되고 있어 연준의 금리인상 자체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달러 약세폭은 제한. 한편,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0.7% 강세를 보였으나, 루블화는 제재 확대 이슈로 달러 대비 2.7% 약세

국채금리는 PCE 디플레이터가 2개월 연속 둔화되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가 확산되며 하락. 다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하락폭은 제한. 더불어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기대 심리를 높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는 지속된다는 점도 하락을 제한

금은 달러 약세 영향으로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알루미늄 광석 수출 금지 등이 겹치며 상승. 곡물은 중서부 지역 비와 강풍으로 파종이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입되며 옥수수과 밀이 상승. 특히 미 파종된 지역의 경우 추가적인 파종을 중단될 수 있어 향후 수확량 감소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영향. 더불어 브라질 곡물 생산량 감소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영향.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3.04%, 철근은 1.60%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115.07	+0.86	+4.34	Dollar Index	101.668	-0.16	-1.44
브렌트유	119.43	+1.73	+6.11	EUR/USD	1.0735	+0.09	+1.62
천연가스	8.73	-1.89	+7.97	USD/JPY	127.11	-0.01	-0.60
금	1,857.30	+0.18	+0.48	GBP/USD	1.2631	+0.25	+1.21
은	22.10	+0.60	+1.95	USD/CHF	0.9568	-0.32	-1.83
알루미늄	2,871.50	+0.23	-2.53	AUD/USD	0.7162	+0.90	+1.73
전기동	9,459.00	+1.13	+0.39	USD/CAD	1.2724	-0.38	-0.90
아연	3,843.50	+2.89	+3.68	USD/RUB	66.3447	+2.69	+6.77
옥수수	777.25	+1.60	-0.19	USD/BRL	4.7306	-0.81	-3.06
밀	1,157.50	+1.25	-0.96	USD/CNH	6.7208	-0.69	+0.31
대두	1,732.25	+0.33	+1.58	USD/KRW	1,256.20	-0.85	-0.94
커피	229.45	+1.26	+6.30	USD/KRW NDF1M	1,252.71	-0.63	-1.63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738	-0.91	-4.33	스페인	88.117	-1.79	-4.14
한국	3.217	-1.50	-2.30	포르투갈	96.229	-3.33	-5.78
일본	0.233	-0.70	-0.90	그리스	85.505	-4.29	-22.53
독일	0.963	-3.50	+1.90	이탈리아	83.365	+0.43	-10.01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